

■ 주요 업무 사례 ■

(주)한화 무역부문의 분수림 조림사업 계약 체결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주)한화 무역부문이 캄보디아 산림청과 분수림 조림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상 사업 실사와 역외 SPC 설립, 계약 체결 등 포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한화 무역부문은 캄보디아 크라체 주의 3만4000ha 규모의 조림지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연간 1500~2000ha 조림계획 및 천연목을 생산할 예정에 있습니다.

분수림계약 방식은 정부가 조림지를 제공하고 투자자는 산림을 조성, 생산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와 정부가 분배하는 수익분배계약(profit sharing contract) 방식으로 기존의 조림지 확보 방식인 경제적 토지양여권에 비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조림지를 확보, 운영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한화 무역부문의 이번 사업은 2009년 한국과 캄보디아 양 정부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진행된 사업 중 최초로 결실을 맺은 사례여서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 캄보디아에 '한화숲'...여의도 40배 크기 조림지서 원목 생산 - 매일경제(2012. 4. 16.)
- 한화, 캄보디아서 여의도 40배 규모 조림사업 - 한국일보(2012. 4. 16.)
- 캄보디아에 '한화숲' 만든다 - 헤럴드경제(2012. 4. 16.)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도요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캄보디아 사무소장



홍진경 미국변호사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라오스 사무소장